

광주시, 투명·공개로 '행정신뢰' 높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생중계 등 도시개발 이정표 제시 공공이익 극대화 방안 도출 속도 높여 '주목'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평가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의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개발 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민과 공공의 이익은 높이고 사회 갈등도 해소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공원 9곳은 사유지가 평균 81.5%에 달해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가 해제돼 땅 소유주는 자체 개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시는 특례법을 적용해 전체 공원 부지의 98%를 개발하는 대신, 개발 이익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중앙공원 1지구사업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는 아파트 건설 분양 방식의 잦은 변경(선분양→후분양→선분양)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 등 사회 갈등이 심각했다.

광주시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개·투명·신속'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월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 협약에 근거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며 앞서 협약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분은 100% 환원돼야 한다"고 입장

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강 시장이 밝힌 손해분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2세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금융비용 절감액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곧바로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후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선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고 3월8일에는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전부를, 3월18일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체결한 '2021년 변경협약서'를 모두 공개했다.

또 민간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중 한 곳인 한양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토론회(3월6일), 보다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공개검증회의(3월18일)를 개최했다.

3월21일과 28일 광주도시계획위원회를 온라인 생중계 하면서 공개·투명 원칙을 실현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생중계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 '비공개 원칙'이었던 개발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3월26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팔장토론회를 통해 중

앙공원1지구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도 공개·투명·신속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건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풍암호수, 어린이이상 놀이터, 도시철도2호선 개통 등과 함께 광주를 지키는 도시숲, 모두가 즐기는 명품공원을 완성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시장, 광주연구원과 현장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후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위해 광주연구원을 방문,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신혼·난임부부 임신·출산 지원 확대

도, 냉동 난자 시술비 등 신규사업 시행

전남도는 2일 "이달부터 신혼부부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가운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바라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입력 검사비(여 13만원·남 5만원 이내)를 지원, 임신 전 장애요인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 가입력 검사는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전담에 주소를 둔 여성 가운데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를 대상으로 가입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1회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하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양시원기자

광주 '착한가격업소' 226곳 혜택 늘린다

전기·가스요금 등 지원...상생카드 5% 추가 캐시백도

광주시는 2일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광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총 226개소로 의식업 150개, 개인서비스업 76개소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9천만원을 투입, 착한가격업소에 전

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와 함께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1회당 2천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선강기자

전남도, 지능형앰블런스 20대 도입... '골든타임' 확보

AI 활용 지역 6개 병원과 환자 정보 공유

전남도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 시범 적용 지역 공모'에 선정돼 도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은 기존 응급의료 체계의 기술·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차에 영상을 수집하는 통신 캠

과 음성을 수집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5G 태블릿을 탑재하고 119 종합상황실과 의료기관에 응급서비스를 표출하는 장비를 도입해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구급차와 종합상황실·의료기관 간 응급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 의료기관은 환자 도착 전 수술 준비 등 최적의 치료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환자 이송 시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도 소방본부에 '인공지능 앰블런스' 20대와, 의료기관 6개소(성가롤로병원, 여수전남병원, 순천한국병원, 순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광양서울병원)에 이송 중 응급환자 정보 등 응급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기(E-R-KIOSK)를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적용 지역의 지능형응급의

료시스템 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적용 지역 확산 및 보급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인공지능 앰블런스가 도입되면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등 도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양성평등 확산 총력...위원회서 시행계획 등 심의

전남도는 2일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심의와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위원회에는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사회단체·지역기업·대학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전남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023년 양성평등 기금 결산 ▲2024년 전남도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

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48개 과제를 발굴, 1천640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양성평등 기금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했던 양성평등 기금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또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27개 사업을 심의해, 기금 사용 목적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16개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양시원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